



한국IDC, 2019년 1분기 국내 PC 출하량 142만대, 전년 대비 6.7% 하락

2019년 6월 24일, 서울 – IT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인터내셔널데이터코퍼레이션 코리아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Ltd., 이하 한국IDC, 대표 정민영, <https://www.idc.com/kr>)의 최근 국내 PC 시장 연구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국내 PC 출하량은 데스크톱 56만대, 노트북 86만대, 전체 142만대로 전년 대비 6.7% 하락하였다. Figure 1



[표1]국내 PC 분기별 출하량 [천대]

	데스크톱	노트북	합계	전년대비성장률
2018Q1	603	925	1,528	-6.0%
2018Q2	473	482	955	-5.1%
2018Q3	446	462	908	-10.7%
2018Q4	408	445	853	-8.3%
2019Q1	560	866	1,426	-6.7%

Source: IDC, 2019

시장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학기를 맞이하여 두께 15mm 미만 울트라슬림과 필기 기능을 지원하는 컨버터블이 각각 58.6%, 51.3%의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울트라슬림은 11형부터 17형에 이르기까지 화면 사이즈가 다양해져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 반면, 게이밍 PC는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 기존 게임 위주로 순위권이 유지됨에 따라 출하량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 외, 메인스트림 및 프리미엄 노트북의 경우 지포스 MX150과 같은 외장그래픽을 장착하여 성능 차별화를 꾀하였다. Figure 2

[표2] 국내 PC 제품별 출하량 [천대]

		2018Q1	2019Q1	전년대비성장률
데스크톱	올인원	50	39	-22.2%
	일반데스크톱	542	507	-6.4%
	기타	12	14	18.7%
<b>데스크톱합계</b>		<b>603</b>	<b>560</b>	<b>-7.2%</b>
노트북	컨버터블	63	95	51.3%
	울트라슬림 <15mm	39	63	58.6%
	울트라슬림 15<18mm	382	342	-10.5%
	울트라슬림 18<21mm	207	228	10.3%
	일반노트북	232	136	-41.3%
	기타	2	3	22.2%
<b>노트북합계</b>		<b>925</b>	<b>866</b>	<b>-6.3%</b>
<b>합계</b>		<b>1,528</b>	<b>1,426</b>	<b>-6.7%</b>

Source: IDC, 2019

컨슈머 부문은 85만대 출하로 전년 대비 9.8% 감소하였지만, 노트북으로의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저가 제품 보다는 중고가 제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공 부문은 18.7% 줄어든 9만여대 출하에 그친 반면, 교육 부문은 IT 투자 확대로 30.1% 성장한 11만여대로 증가하였다. 기업 부문은 3.4% 감소한 약 36만대를 출하하였으며, 중소기업 보다는 금융, 제조, 의료 등 대기업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Figure 3

[표3] 국내 PC 시장별 출하량 [천대]

		2018Q1	2019Q1	전년대비성장률
데스크톱	가정	181	153	-15.2%
	공공	95	89	-6.4%
	교육	64	87	36.4%
	기업	264	231	-12.6%
<b>데스크톱합계</b>		<b>603</b>	<b>560</b>	<b>-7.2%</b>
노트북	가정	771	706	-8.5%
	공공	20	4	-77.9%
	교육	21	23	10.9%
	기업	113	133	18.1%
<b>노트북합계</b>		<b>925</b>	<b>866</b>	<b>-6.3%</b>
<b>합계</b>		<b>1,528</b>	<b>1,426</b>	<b>-6.7%</b>

Source: IDC, 2019

한국IDC의 권상준 이사는 "컨버터블, 15mm 미만 울트라슬림 등 폼팩터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서의 PC 공급, 엣지 컴퓨팅과의 접목, 5G를 포함한 네트워크의 활용 등 새로운 IT 기술과의 접목이 중요하다" 고 언급하면서, "최근, 모바일프로세서를 장착하여 울데이컴퓨팅이 가능한 기기 및 스트리밍 형태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PC 시장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발전,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 About IDC

**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IT 및 통신, 컨슈머 테크놀로지 부문 세계 최고의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입니다. 현재 전세계 110여개 국가에 1100명 이상의 시장 분석 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기술 및 산업, 트렌드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DC의 분석 정보와 인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은 시장 상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최신 이슈들을 업무에 신속하게 반영하며, 사실 기반의 의사 결정 및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합니다. IDC는 1964년 설립되었으며, 세계적인 테크놀로지 부문의 미디어 및 리서치, 이벤트 그룹인 IDG의 자회사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www.idc.com](http://www.idc.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witter: @IDC)

한국IDC(<http://www.idc.com/kr>)는 1997년 현지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해외정보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된 시장조사 모델을 채택, 여기에 GLOCAL(Global+Local) 모델을 효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 연구원 및 폭 넓은 시장 조사와 수년간 축적된 연구 분석을 토대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전세계 110여개국에 걸친 IDC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규 리서치 서비스에서부터 커스텀 컨설팅, 이벤트를 포함한 마케팅 솔루션에 이르는 종합적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About IDC**

IDC is the premier global provider of market intelligence, advisory services, and events for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ies. IDC helps IT professionals, business executives, and the investment community make fact-based decisions on technology purchases and business strategy. Over 775 IDC analysts in 50 countries provide global, regional, and local expertise on technology and industry opportunities and trends. For more than 40 years, IDC has provided strategic insights to help our clients achieve their key business objectives. IDC is a subsidiary of IDG, the world's leading technology media, research, and events company. You can learn more about IDC by visiting <http://www.idc.com/>.

IDC is a subsidiary of IDG, the world's leading technology media, research, and events company. Additional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idc.com](http://www.idc.com).

All product and company names may b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holders.

###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Yoona Jung(###)

yjung@idc.com

+8225504321

Sang Jun Kwon (###)

sjkwon@idc.com

+8225504344